

## 주님의 오심을 위한 우리의 준비

### (1)

#### 깨어 있고 준비됨

성경: 마 24:32-44, 25:1-13

#### I.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깨어 있고 준비됨에 대한 말씀이다.

- A. “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의 아들이 임하는 것도 그러할 것입니다.” —마 24:37.
1. 홍수 전에 노아의 세대를 마취시킨 악한 생활상은 대환난과 주님의 오심 이전의 사람들의 위험한 생활상을 묘사한다—마 24:3, 21, 27, 37, 39, 눅 17:26-27.
  2. 초기의 이기는 이가 되어 휴거되려면 우리는 우리를 마취시키는 오늘날 사람들의 생활상의 영향을 반드시 이겨야 한다—마 21:34-36.
- B. “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,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.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,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 둡니다.” —마 24:40-41.
1. 데려가는 것은 대환난 전에 휴거시키는 것이다—마 24:21, 계 3:10.
    - a. 휴거의 의미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가는 것이다.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으로 데려간바 되려면 반드시 우리는 오늘 그분의 임재 안에 있어야 한다—눅 21:36, 고후 2:10.
    - b. 휴거는 주로 우리의 누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림, 하나님의 경륜,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. 휴거는 원수를 패배시키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기 위한 것이다—계 12:5, 14:1, 4하.
  2. 데려간 사람은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고, 그렇지 않은 사람은 생명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다.
  3. 우리는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휴거되기를 바라는 동안, 매일의 의무에 신실함으로 균형 잡힌 인간 생활을 해야 한다—살후 3:6-15.
- C. “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.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” —마 24:42.
1. 이기는 이들은 깨어 있는 이들이기 때문에 대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될 것이다—마 24:21.
  2. “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 늘 간구하며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.” —눅 21:36.
    - a. 여기에서 ‘능히’ 라는 말은 힘과 능력을 가진 것을 뜻한다. 대환난을 피할 힘과 능력은 깨어 있고 기도하는 데서 온다.
    - b. ‘사람의 아들 앞에 설 수 있도록’ 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있는 ‘서 있는데’ 라는 말과 일치한다. 이것은 휴거된 이기는 이들이 대환난 전에 하늘들에 있는 시온 산에서 구주 앞에 설 것임을 가리킨다.
    - c. 보좌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데려가는 것은 우리가 특별한 방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데 달려 있다.
- D. “이러므로 여러분도 준비하고 있으십시오. 왜냐하면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은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.” —마 24:44.
1. 우리는 생명이 자라고 성숙되도록 기도함으로써 주님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준비한다—참조 벵후 1:5-11.
  2. 휴거를 준비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완전히 채워지는 문제이다—참조 엡 3:16-17상.

## II.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어 있게 하는 비유이다.

- A. “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습니다.” —마 25:1.
1. 처녀들은 생명의 방면에서 본 믿는 이들을 상징한다—고후 11:2.
  2. 등은 기름이신 하나님의 영을 담은, 믿는 이들의 영을 상징한다—잠 20:27, 사 61:1, 히 1:9, 롬 8:16.
- B. “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,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.” —마 25:3-4.
1. 그릇은 믿는 이들의 혼을 상징한다—롬 9:21, 23-24.
  2. 우리의 등에 기름을 갖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갖는 것이다.
  3. 우리의 그릇에 기름을 담는 것은 우리의 혼을 채우시고 적시시는 하나님의 영을 갖는 것이다.
  4. 우리는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그 영을 가지고 있지만, 문제는 우리의 혼 안에 여분의 성령이 있는 나이다.
- C. “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‘우리의 등불이 꺼져 가니 여러분의 기름을 좀 주십시오 오.’ 하였지만, 현명한 처녀들은 ‘우리와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,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.’ 하였다.” —마 25:8-9.
1. 우리의 혼을 그 영으로 채우기 위해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—마 25:4.
    - a. 대가는 세상을 버림, 자아를 처리함, 주님을 모든 것보다 더욱 사랑함,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등을 포함한다.
    - b. 우리는 우리의 영 안으로 오시는 그 영을 값없이 받았지만, 우리의 혼이 그 영으로 적셔지고 채워지는 것은 값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.
    - c. 우리의 영 안에 그 영을 얻은 후에 우리는 그 영으로 더욱 채워지기 위해, 곧 여분의 기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.
  2. 깨어 있는 것은 그 영으로 채워지는 것이다—마 25:13, 엡 5:17-18.
    - a. 깨어 있는 것은 기름을 삼으로 매일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이다.
    - b. 만약 우리가 그 영께서 우리의 온 존재를 적시시도록 허락한다면,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위해 자신을 예비하는 깨어 있는 사람들이다.
  3. 우리의 혼을 그 영으로 적시고 채우는 것은 하루 만에 성취될 수 없다. 그것은 평생이 걸리는 일이다.
  4.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, 죽기 전에 우리의 그릇에 충분한 기름을 모음으로 준비되어야 한다—마 25:4-5.
  5. 기도하는 것 외에는 기름을 얻는 다른 길이 없다. 기도를 통해 우리는 그 영을 더욱더 받는다—엡 5:18, 6:18.
  6. 우리가 일찍 휴거되어 혼인 잔치로 들어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우리가 매일 그 영을 사는 데 달려 있다—마 25:10-12.
    - a. 우리가 휴거되어 신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려면 영적인 기름을 모으는 긴 기간을 통과해야 한다—마 22:2, 11-14, 계 19:7-9.
    - b. 충분한 기름이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우리의 권리일 것이다—마 25:10.